

악취통합관제센터, 쾌적한 도시 지킴이 역할 수행

악취발생 상황 시각화 등
발생 예측 전후 경로 추적
악취측정기 31대 설치·운영

지난해 7월 전남도내 최초로 문을 연 '나주시 악취통합관제센터'가 민원 해소와 쾌적한 도시 환경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악취 사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악취 전담 창구로서 악취로 고충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 현장 중심의 공감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이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청사 별관 3층에 위치한 악취통합관제센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악취발생 상황을 시각화할 수 있는 통합관제(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환경 분야 전문 인력 6명이 오전과 오후 하루 2교대로 연중무휴 실시간 악취 상황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화한다.

이를 통해 악취 발생 예측뿐만 아니라 발생 전후 경로를 추적하는 등 선제적이고도 체계적인 악취 대응이 가능해졌다.

현재 나주시 관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인근에는 악취측정기 31대가 설치·운영



나주시 악취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최근 센터에서 공간정보시스템(GIS)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악취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중이다.

1분 단위로 복합악취·암모니아·황화수소·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악취 요인 수치를 정밀하게 측정, 전송되는 등 실시간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상습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의 경우 야간 취약시간대 상시 순찰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악취를 포집해 기준 수치를 초과하

는 경우 강력히 단속한다.

현재까지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508건의 지도점검이 이뤄졌으며 이중 사업장 13곳을 고발 및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센터 개소 후 시민들도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 악취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컴퓨터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시청 누리집 '악취민원신고'에 접속하면 악취측정기를 통해 수집된 악취물질 측정값(수치 그래프), 시간대별 악취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악취 신고·접수는 물론 타인이 제기한 지역별 악취 민원 위치 정보, 민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센터 직원들은 유선, 누리집에서 접수된 악취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전화 응대 및 현장 조치(자정 이후엔 익일)를 하며 이전과는 다른 민원 응대로 호평을 얻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엔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악취 발생 현장 지도점검 수의 경우 센터 개소 이전인 2023년 1~5월 151건에서 올해 1~5월엔 5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승규 나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장은 "기존에는 담당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대 악취가 매우 빈번하고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센터가 생겨난 이후로 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을 체감한다"며 "무엇보다도 답답했던 악취 민원 처리가 신속, 정확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악취는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센터 운영을 통해 이전보다 체계적인 민원 응대와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한 사업주 환경 개선 의식 고취는 물론 악취저감 사업을 병행해 시민들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동신대, 사회복지 급식 강화 업무협약

나주시가 동신대학교와 관내 취약계층들에게 더 깨끗하고 영양 가득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나주시는 지난 16일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와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사회복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관내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관리와 양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운병태 나주시장, 아주희 동신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 실태조사 및 순회방문지도, 위생 및 급식 영양 컨설팅, 대상별(이용자, 조리원, 종사자 등) 위생·영양교육 실시 등이다.

나주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운영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집단 급식소를 제외한 급식 인원 50명 미만이고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설 38개소(노인복지시설 31, 장애인복지시설 7)이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농업기술센터, 명품딸기반 교육 개강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은)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나주 명품딸기반'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17기 친환경농업대학' 커리큘럼 중 하나로 수강생 36명을 대상으로 딸기 명품화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노하우를 1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공유할 예정이다.

나주시 친환경농업대학은 2008년부터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품목별 재배기술', '디지털농

업', '농작업안전', '합리적인 농장경영' 등 영농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론·실습 교육을 실시중이다.

강의에서는 딸기 재배생리부터 육묘, 병해충관리, 최신 스마트 농업기술 트렌드까지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313농가에서 딸기 2227톤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 87억원을 올렸다. 나주 딸기 주품종은 '설향'으로 탄탄한 강도와 높은 당도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 개별공시지가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나주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만803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

사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나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7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 금천면주민자치위원회원들이 최근 금천면 고동사거리에서 아름다운 꽃밭을 정비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금천면 고동사거리 '금빛동산' 조성

나주시 금천면 고동사거리가 아름다운 금빛동산으로 재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나주시 금천면(면장 최요남)에 따르면 최근 금천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반재곤)와 함께 고동사거리 홍보게시대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금천면 고동사거리는 빛가람혁신도시

와 나주시청, 연산포 등을 지나는 주요도로임에도 그동안 쓰레기와 잡초 등이 저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4월 월례회의에서 사거리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식재해 꽃동산을 조성하는 데 의견을 모아 '금빛동산'을 조성했다.

반재곤 주민자치위원장은 "농번기로바

쁜 와중에도 지역 가꾸기 사업에 적극 동참한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금빛동산이 계속해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환경 정비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요남 금천면장은 "잡초가 무성한 고동사거리를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바꿔주신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금천면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드론 감시

나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한다.

나주시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드론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남평읍, 노안면, 금천면, 산포

면 일대 39.4㎢가 지정돼있다.

감시 대상은 불법 절·성토, 개간, 형질변경, 무허가 건축물,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현장 계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

이다.

시는 현재 2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는 항공사진 판독과 수시 드론 촬영을 병행해 상호 보완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드론 감시는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기 못했거나 상습적으로 발생했던 불법행위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점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